

학회지 AARD를 편집하며...

알레르기 천식 호흡기질환(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 AARD)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공식 학술잡지(pISSN 2288-0402, eISSN 2288-0410)로서 기존의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와 ‘천식 및 알레르기’를 통합하여 2013년 3월에 창간되었다. 소아청소년과의 알레르기전문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이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두 학회 모두 SCI급의 대표 영문 논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양학회의 잡지를 통합하여 영문 학회지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AAIR)와 국문 학회지를 공동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하여 AARD를 창간하였다.

AARD를 창간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신 당시 연세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김규언 교수님께서 2016년까지 편집위원장을 하시고 단국의대 내과 지영구교수, 성균관의대 소아청소년과 안강모교수, 울산의대 소아청소년과 유진호교수, 인하의대 내과 김철우교수와 새로 합류한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김현희교수께서 공동 부편집위원장을 맡으면서 실제 잡지의 발간과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셨으며 현재까지 총 43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요즘시대에 국문 잡지가 이 정도 고품질로 살아남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 글을 통하여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20여분의 편집위원들이 논문 심사위원을 결정해주고 논문이 부족할 땐 스스로 더 많은 논문을 기고해주시고, 매호의 논문 선정도 같이 해주시는 등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부탁하는 일들을 한번의 거절도 없이 논물발전에 애쓰시는 것을 뵈면 그분들의 학회사랑, 성실함과 희생정신에 사뭇 고개가 숙여진다.

AARD의 편집위원장을 맡은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잡지를 처음 만들면서 고생하신 김규언 교수님께서 정년퇴임하시면서 편집위원장을 사임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그 역을 맡게 되었다. 사실 개인적으로 과연 AARD 편집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나 자신한테 해보았는데... 부족하다가 답이었다. 하지만 양 학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이 어렵게 결정하시어 맡기신 걸 잘 알고 있고, 학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만큼은 남 못지않다고 자신하기에 부족하지만 그냥 맡겨 주신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시작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AARD를 운영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요즘 세상에서 SCI급 아닌 국내 잡지는 힘겨운 살아남기를 해야 한다. 어찌보면 이는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이 높아지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니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국내잡지는 나름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으로 단순히 SCI 영문지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잡지라는 일반적인 평가와 국내잡지 스스로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다른 학회사정이나 상황은 차치하고 AARD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통해 우리의 존재이유와 발전방향을 한번 되새겨본다. 물론 우리도 기고되는 논문이 자꾸 줄어들어 심지어 해외학회지원에 우선권을 주자는 안도 마련하려하고 발간횟수도 줄이는 등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미봉책보다는 우리 스스로 양 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역사와 전통을 같이하는 우리 잡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발전시키는데 모든 학회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편집위원들과 학회 임원들과 여러 방면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나름 제시된 AARD의 존재 이유 및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 연구를 시작하고 수련을 받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논문작성법을 지도해 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심사와 편집인들의 역할 속에서 논문의 평가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수정 보완을 해 줌으로써, 젊은 학자가 앞으로 훌륭한 연구자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다. 이는 정말로 우리 학회와 학문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 자부하고 있다. 실제로 전공의든 전문의든 교신저자인 지도교수 지도아래 논문을 완성하여 제출하지만 대다수가 논문 심사과정을 통해 중요한 논문 작성법과 더 근원적으로 연구하는 법, 그리고 자료 분석법을 배운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AARD는 수련의나 전문의 등 젊고 새로 시작하는 연구자의 좋은 논문발간에 많은 정성을 쏟을 것이다. 다음은 대상 구독자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연구결과, 그리고 국내 자료의 공유와 관련한 문제이다. 실제 영어 논문을 쉽고 편하게 구독할 수 있는 의사는 그리 많지 않다. 대다수의 개원의 선생님들이나 전문의들은 빠른 시간 안에 주요한 데이터와 정보를 접하고 싶어 하며, 국내 순수자료로서 우리 실정을 잘 반영하는 논문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AARD는 실험연구 논문뿐 아니라 국내실정에 맞춘 진료지침 등을 통하여 실제 임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 우리학회에는 질환별 전문 연구팀 활동이 활발하여 여기서 나오는 여러 임상연구결과와 지침서의 발간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훌륭한 종설이 많이 게재되어 이를 통합하면

교과서수준이 될 종설의 모음도 우리잡지의 긍지이기도하다. 셋째로 학회의 주요 목표의 하나인 학회원간 소통의 장 역할을 한다. 그 첫걸음으로 2017년부터 학회 발전에 평생 기여를 하고 정년퇴임하시며 새로운 길을 가시는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AARD History 란에 게재하기 시작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이 AARD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오 우수논문상을,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청산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고 있다. 또한 과총의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추천하여 수상하고 있으며,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도 AARD 논문을 심사하여 최우수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우리의 AARD... 이 정도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발전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확신한다.

다시 한번 양 학회의 회장님, 이사장님, 이사님들께 여러분으로 지원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부편집위원장님과 편집위원님들, 귀한 논문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논문 최종 교정을 해주시는 안환태선생님, 영문초록을 봐 주시는 것은 물론 잡지가 바로 갈수 있게 항상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스승님 민양기 특별 편집고문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다. 또한 AARD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궂은일 좋은 일 도맡아 해주시는 학회의 김태은과장님께도 이번 기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모든 학회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많은 논문을 투고해주셔서 우리 학회원들의 힘으로 다시 한번 AARD가 크게 발전할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